

## 200자 안내

### 내 가슴에 섬 하나 있어

서영은 외 지음

여류작가 8인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앤솔로지. 최명희의 「결별」을 비롯해 서영은의 「먼 그대」, 오정희의 「직녀」, 김지원의 「어떤 시작」, 김채원의 「밤인사」, 양귀자의 「찾집여자」, 박의진의 「타는 여름」, 강석경의 「물속의 방」, 김민숙의 「바다와 나비병」을 읽고, 수록 작품을 선택한 문학저널리스트 김훈의 해설 「내 마음속 사랑의 호롱불 한점」을 덧붙였다.

푸른숲 / A5신 / 294면 / 3500원

### 크레믈린의 새바람

페르난도 메제티 지음 / 김태용 옮김

브레즈네프의 사망에서 고르바초프의 집권에 이르는 '극적인' 5년간을 모스크바에서 지냈던 저자(이탈리아 「라스탄파」지 아시아지국장)가 고르바초프의 권력장악과정을 추적한 책으로 원제는 '고르바초프 전환의 줄거리'. 저널리스트 특유의 입담과 필력이 소련현대정치사의 변혁을 소설처럼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평민사 / A5신 / 280면 / 3800원

### 종합러시아어 II

박형규 외 지음

소련에서 발간된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학습서들을 기본텍스트로 하여 우리말과 러시아어의 언어구조 및 문법체계를 상호대비하면서 러시아어를 익힐 수 있도록 엮은 책의 '작문편'. 모두 46과로 나눈 가운데 러시아어 기초문법을 활용하여 문장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습문제를 수록했다.

푸른산 / B5 / 270면 / 5000원

### 바늘반지

원명희 지음

서울 창신동 철거민 천막촌에 살고 있는 저자가 자신과 자신 주위의 철거민 생활을

육성 그대로 쓴 글. "재개발이라는 날이 시퍼런 도끼가 낙산동을 내리쳐려 할 때 전혀 무방비상태"였던 철거민들이 어떻게 "바늘의 지혜와 날카로움"으로 일어서는가를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하늘땅 / A5신 / 312면 / 4000원

### 프로세일즈맨의 판매화술

김영국 지음

소비자들의 의식과 정보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하면 된다"는 식의 정신적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세일즈가 불가능해졌다는 관점 아래 정신력 못지 않게 중요한 판매기술의 노하우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 '세일즈화법의 기본요령' '방문세일즈의 필승화법'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 등 8부로 나눈 가운데 저자는, 오늘날의 판매시장은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닌 프로세일즈맨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교육센터 / A5신 / 288면 / 4200원

### 국가와 사회

猪口孝 지음 / 이형철 옮김

거시정치학의 관점에서 통치집단과 피치집단, 지배자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대중의 상호작용을 고찰한 책으로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계급관계, 민주주의, 관료제의 다섯가지 시각을 비교·대조하면서 현대일본정치를 규명했다. 1988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일본 東京大의 '현대정치학총서'의 제1권을 번역한 책.

남남 / A5신 / 218면 / 4500원

### 소련의 이해

하카마다 시게키 지음 / 정성환 옮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소련의 변화와 그 영향을 25가지 항목으로 분석한 소련이해의 경험론적 평론집. 소련사회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나 허상을 근본부터 파헤친 입문서적 성격의 제1부 '오해를 푸는 25가지 시각'과 함께, 제2부에는 저자와 소련과학아카데미 경제부장 아감베간이 나눈 대담 '소련경제 개혁, 제3의 길은 존재하는가'를 실었다. '무엇을 할 것인가'란 뜻의 '쉬또젤라찌총서' 제2권.

열린책들 / A5신 / 182면 / 2800원

### 나 이제 너를 잊으리

김충용 지음

약관 20세에 대학생신분으로 결혼했다가 군에 입대, 신병훈련을 받던 도중 아내가 없어져버렸던 필자가 20여년동안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순애보적 사랑의 여정을 그린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겪은

이야기'. 사랑하는 여인이 잠적한 순간부터 한 남자의 청춘도 잠적해버린 내력이 실명소설의 형식 속에 펼쳐진다.

정암문화사 / A5신 / 296면 / 3700원

### 믿음, 지혜, 그리고 깨달음

라마크리슈나 지음 / 석지현 옮김

상카라 차리아, 붓다와 더불어 인도의 3대 성자로 꼽히는 라마크리슈나의 명상록. 언어의 수식은 단 한마디도 없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만을 말했던 라마크리슈나의 가슴(사랑)과 머리(지혜)를 만날 수 있는데, 그의 제자 비베카난다의 강연초록인 제6장 '나의 스승 라마크리슈나'가 라마크리슈나 사상의 이해를 돕는다.

성정출판사 / A5신 / 252면 / 3500원

### 신나는 물리

小野周 지음 / 심정인 옮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현상들이 과학법칙과 어떻게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는가를 흥미로운 예화를 통해 해설한 대중용 교양과학서. '인공위성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얼음은 왜 물에 뜨나' '서리는 왜 내리나' '육조의 물은 어떻게 데우면 경제적일까' '천문학자는 왜 커다란 망원경을 갖고 싶어 할까' '별은 왜 낮에는 보이지 않나' 등 전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과학실 / A5신 / 236면 / 3300원

### 엄마 아빠, 똑바로 걸으세요

C.G. 잘츠만 지음 / 김영만 옮김

페스탈로치와 더불어 유럽교육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실천교육가 잘츠만의 「계의 책」을 편역했다. "모든 것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잘못된 가정교육의 폐단을 많은 예화를 들어 날카롭고 유머러스하게 서술함으로써, 가정교육의 본보기가 돼야 할 부모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을유문화사 / A5신 / 344면 / 4000원

### 엄마, 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전숙 지음

목회자인 남편을 도와 교회의 영아부 어머니교실을 운영했던 저자의 영아교육 에세이. 모두 52주분에 해당하는 강의록 형식 속에 3세까지의 아이를 둔 신혼부부나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성경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 답을 얻게 한다.

홍성사 / A5신 / 222면 / 3000원

### 겨레의 노래

겨레의노래사업단 엮음

한겨레신문이 '겨레의 노래'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악보집. '겨레의 노래'찾기 사업에 응모된 창작곡 27곡과 개화기 이후 불리어 온 기존의 노래들 중 겨레의 노래라 할 만한 것들을 추려서 한데 묶었다. 민족수난기였던 해방공간에서 불렸던 노래, 중국연변에서 불리고 있는 노래들도 함께 채보하고 있는 점이 특징.

한겨레신문사 / A5신 / 324면 / 4500원

### 먼곳에의 그리움

박재삼 외 지음

시인·작가 및 학자 30인의 에세이 앤솔로지. 사랑, 삶, 인생철학의 3부로 나누어 강유일·강은교·김광림·김동길·김동인·김소운·김승희·김형석·나혜석·노천명·박경리·박완서·박재삼·신동엽·오혜령·이상·유안진·전혜린·한수산 등의 에세이를 실었다. 독특한 판형과 사진수록으로 본문편집의 변화를 꾀했다.

土地 / B6신 / 208면 / 3200원

### 미지의 인간

알렉시스 카렐 지음 / 홍문화 옮김

현대과학의 해부학적 관점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전체성의 관점에서 인간존재의 신비를 파헤친 책.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을 해석하는 한편, 텔레파시나 강신술, 영매현상 등까지도 과학적으로 풀이함으로써 인간이해의 총체성을 제공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학의 정립' '신체의 구조와 성분' '창조적 정신의 활동' '인생의 밀도와 내적인 시간' '지적 개인의 확립' 등 전8장으로 구성.

청림출판 / A5신 / 310면 / 3800원

### 비오는 날 수채화

곽재용 지음

'청기사그룹'이 제작했던 동명의 영화를 그 영화의 감독이 소설로 다시 썼다. "시원스레 펼쳐진 초원과 미루나무들, 그리고 언덕의 완만함을 따라 자리잡은 호밀밭 사이로 이젤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지혜와 "지금 막 3년동안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수가 엮어내는 수채화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대홍 / A5신 / 298면 / 3500원

### 창간호

### 印度學印度哲學

(논문) ▲中論觀行品第十三(김하우) ▲바가

바드 기타에 나타난 힌두교의 사회윤리(길희성) ▲那先比丘經 연구(윤병식) ▲간디의 종교관 연구(김선근) ▲去來에 관한 空觀의 고찰(이법산) ▲라마설화를 통해서 본 라마의 化現觀(서행정) ▲勝論학파의 7범주론(이지수) ▲자이나교의 윤리사상과 현대적 의의(곽만연) ▲니시다철학의 배단타철학에 대한 비판(허우성) ▲아포허論의 정의 및 그 생성배경(전치수) ▲상카철학과 불교의 인식구조적 친화성(정승석) ▲바가바드기타의 즈나나 요가에 관한 연구(이태영)

## 哲學과 宗教

[특집1: 인간이란 무엇인가] ▲유교의 인간 이해(김장태) ▲장자의 인간관(이강수) ▲불교의 인간관(윤병식) ▲가톨릭의 인간관(남기영)

[특집2: 고전과의 만남] ▲田愚의 民齋私稿(성백호 역) ▲李炳憲의 儒教復元論(김장태 역) ▲莊周의 莊子秋水篇(이강수 역) ▲龍樹의 大智度論(남기영 역)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신앙에 대한 강의(황필호 역)

## 계간지

### 문학과사회 (90년 여름)

[특집] 90년대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통일문학과사상과 정통성의 장벽(홍정선) ▲새로운 지식인문학을 기다리며(김병익) ▲노동문학, 생활과 운동의 교환양식(임우기)

[오늘의 한국문학] ▲겹의 삶, 겹의 문학(성민엽) ▲논쟁적 사랑: 방법적 이원론의 세계(정과리)

[논문] ▲이데올로기 지향시의 해석문제(김용직) ▲'탈'의 놀이(김진석)

[시] 정현중 / 최승자 / 황지우 / 정인화 / 송찬호 / 박용하 / 함성호

[소설] 임철우 / 박상우 / 주인석

[서평] 구모룡 / 이광호 / 신현철

### 창작과비평 (90년 여름)

[좌담] 오늘의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위기(이병천 · 손호철 · 김수길 · 조희연)

[논문] ▲태백산맥론(서경석) ▲맑스주의미학의 제문제(김창주) ▲남북한 사학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임영태)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박승욱) ▲니카라과혁명이 행기의 정치경제학(강문구) ▲과학기술혁명과 화이트칼라 노동자(이영희)

[문화시평] ▲과업전야와 우묵배미의 사랑(이효인) ▲과학도서출판의 현황과 과제(과학세대)

[시] 정희성 / 이시영 / 강세환 / 정세훈 / 육봉

수

[소설] 김만옥 / 김영현 / 김하기

[서평] 신경림 / 김태현 / 김영 / 박세길

### 세계의문학 (90년 여름)

[토론: 1989년 동구혁명] ▲공산주의의 종말, 그리고 이제는 ▲명령체에서 자유시장으로 ▲유럽, 하나야아 산다(「디차이트」지 심포지엄)

[오늘의 작가상] 기억의 장례(이선)

[논문] ▲자크 라캉이라는 좌절 / 유혹의 기표(도정일) ▲시와 현실참여-에리히 프리트의 경우(김광규)

[시] 조경권 / 정동주 / 이창기 / 유하 / 김혜수 / 이갑수

[소설] 서정인 / 조성기 / 이병천

[서평] 신형기 / 우찬재 / 김경수 / 이경호 / 정효구

### 동향과전망 (90년 여름)

[특집] 현대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 ▲세계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박병규) ▲한국의 자본축적과 인플레이션(유철규) ▲물가와 민중생활(정건화)

[연속기획] 사회주의, 그 이론과 현실 ▲새로운 사고의 제3세계정책(박형준 · 이미숙) ▲사회주의 발전논리에 대한 일반이론적 고찰(김세균)

[논문] ▲90년대 남북통일문제의 조망(정대화) ▲광주항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정해구) ▲사무전문직노조의 단체협약분석과 갱신방향(허상수) ▲독점적 자본관계와 지배구조의 변동(황태연)

한국사회연구소 / A5신 / 328면 / 4000원



## 사전

### 韓國政治論事典

金學俊 지음



1983년에 간행됐던 한국정치론 관련논저의 문헌해제집 「한국정치론: 연구의 현황과 방향」을 5년여만에 전면개정된 「한국정치론 사전」이 출간, 한국정치연구의 가장 충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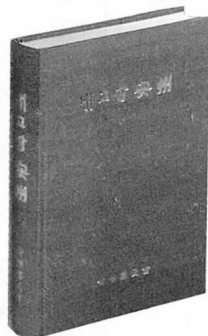
기초문헌 자료집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① 대한제국 이전까지의 시기 ② 망국 속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투쟁의 시기 ③ 미·소 점령 아래서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④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 ⑤ 북한의 정부와 정치 ⑥ 통일조국을 향하여 등으로 나눈 가운데 각각에 해당하는 정치론 관계문헌을 해제하고 있는 이 책은, 전편인 「한국정치론」에 비해 해방3년사나 한국전쟁 같은 분야가 크게 확충된 것이 특징. 1980년대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 수정주의사관의 연구 논문들도 폭넓게 개괄하는 한편, 서유럽과 일본쪽의 자료 및 북한에 관한 1차자료들도 충실하게 수집하여 수록했다. 권말에는 인명색인을 실어 찾아보기에 쉽도록 했다.

한길사 / A5신 / 1120면 / 20000원

## 향토지

### 내 고장 安州

安州郡民會 엮음



평안남도 서북단 청천강의 하류에 자리잡고 있는 안주군의 郡誌 「내 고장 安州」가 최근 발간됐다. 안주군민회(회장 洪馬種)의 노력으로 3년여의 산고 끝에 선을 보인

이 「내 고장 안주」는 특히, 실향민들에 의한 잃어버린 내 고향의 인문지리지 복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데, 1899년에 편찬됐던 漢文本 「安州郡邑誌」 3권을 일차 저본으로 삼고 그밖의 자료들을 수습하여 한권으로 묶었다.

크게 10장으로 나눈 가운데 제1장에서 안주의 지리를 개관한 다음 이어서 역사, 인물, 행정, 경제, 문화 등에 각각 한 장씩을 할애했으며, 안주에 얽힌 선인들의 글도 현대어로 옮겨 실었는데, 이번에 처음 소개되는 李侁의 가사작품 「百祥樓別曲」(1595) 같은 것은 국문학사상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제8장에는 한문본 「安州郡邑誌」를 영인하여 수록하고 우리말 對譯을 덧붙였다.

안주군민회 / B5 / 708면 / 비매품

## 자서전

### 金龍泰自叙錄(전2권)

金龍泰 지음



민간인 신분으로 5·16군사혁명에 가담, 민주공화당의 초대 원내총무를 역임한 바 있는 정치인 金龍泰씨의 자서전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정신”을 기술하려고 했다는 저자의 정치일선에서의 생생한 체험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는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제3공화국 정치권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1960~1970년대의 한국현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전에서의 삶에서부터 8·15광복과 6·25참전, 5·16과 3선개헌, 10월유신과 월남파병, 그리고 5·17과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삶이 한국현대사의 숨겨진 격랑과 맞물리며 서술돼 있는데, “한 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설정의 일환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 저자의 말.

집문당 / A5신 / 24570면 안팎 / 비매품